

CES 열기 태평양 건너 韓증시 데울까... AI·로봇株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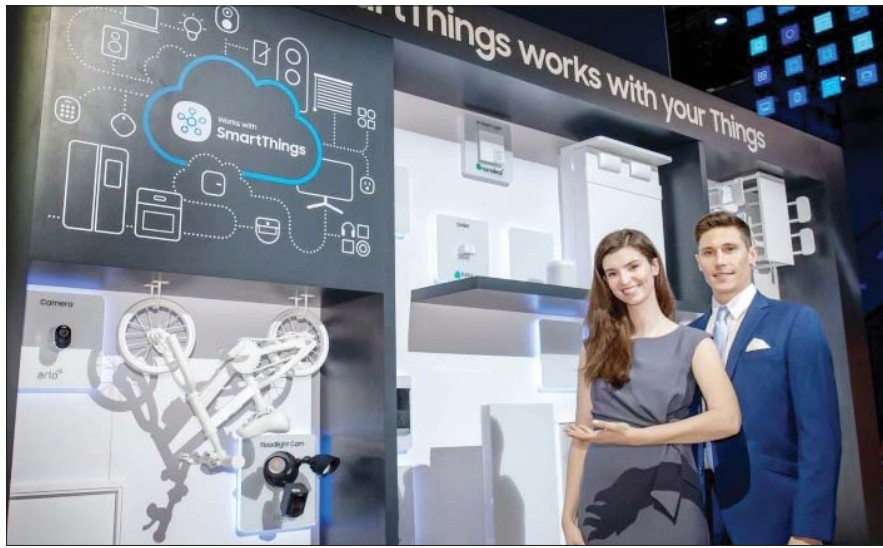
삼성전자 새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개

IT 업종 대형주 상승세 예고
중소형주도 흐름 같이할 것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개막과 함께 IT 상장사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CES에는 한국 기업 총 390곳이 참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 6곳과 중소기업 184곳, 스타트업 200곳이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로 향해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각축전을 펼친다.

그중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가전제품과 로봇 서비스 등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CES 2020' 전시회 앞서 AI와 IoT를 적용한 제품 소개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김현석 사장은 새로운 인공지능(AI) 로봇을 전격 공개했다. LG전자는 전시회장에 마련된 2044㎡ 규모의 부스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AI 기술을 제대로 어필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CES와 관련된 중소형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겹치며 CES 테마로 엮인 중소형주가 반짝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CES 기간을 전후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돌았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높았던 2015년 코스닥 소형주의 1~2월 수익률은 19.8%를 기록했다.

그중 IT 대형주의 상승 흐름이 뚜렷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연NH투자증권 연구원은 "CES로 IT 업종이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IT 대형주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면 관련 중소형주 역시 흐름을 같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중소형주도 눈여겨봐야 한다.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재윤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AI와 관련된 주가가 오르고 있다"며 "AI 업종 주가 퍼포먼스가 당분간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CES를 통해 부각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유대근 현대차증권 울산지점 책임매니저는 "CES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과 풀 디블폰, 멀티카메라 등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며 "이중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선별해 유심히 보라"고 설명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AI뿐 아니라 롤러블TV, QLED 8K TV, 마이크로 LED, 스마트홈, 자율주행, 로봇, 푸드테크, 디지털 치료 등도 화두"라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며 테크업종의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ES가 당장 실적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전시 제품이나 특별하게 주목받는 업체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7951억원이 증가해 10조4561억원을 기록했다. 제도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 5조3600억원, 확정기여형(DC) 3조5254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1조5708억원으로 2018년 말 대비 DB 7718억원, DC 5630억원, IRP 4603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DB 51%, DC 34%, IRP 15%로였다. 개인형 연금인 DC+IRP 비중이 절반을 구성해 퇴직연금 적립금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의 원동력으로 우수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꼽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공시된 퇴직연금 1년 수익률은 적립금 상위 10개사 기준 DB, DC, IRP 모든 제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2018년 말 기준 10년 장기수익률도 DB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해 DC, IRP도 최상위 수준의 수익률을 보였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산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단순 자산 증대 영업이 아닌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해 온 결과 지난해 연금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개인연금금은 지난해보다 4025억원 증가한 3조4985억원을 기록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전체 연금 자산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압구정 아파트 규제 직격탄... 거래 뚝, 가격 상승폭 주춤

매도자-매수자 눈치싸움 속
당분간 매매가 보합세 전망

서울 강남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싸늘하게 식고 있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보유세 폭탄을 우려한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이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는 정부의 12·16 대책 직후 거래가 줄어 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양상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시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일부 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초강력 세무조사 예고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아파트 거래는 단 8건에 불과하다. 전월 28건 대비 20건 줄어든 수치다.

압구정 현대·미성·한양 등 아파트는 지난 1976~1987년에 준공됐다. 모두 재건축 초기 단계로 전세가격이 매매가



정부의 강력한 집값대책으로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시장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대비 20~30% 수준이다. 예전에는 아파트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전세를 끼고도 일부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12·16 대책 이후 대출이 금지돼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순수 본인 자금력에 의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상반기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12·16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2019년12월18일~2020년6월30일)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동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40%도 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세세차익을 노리기 어렵다"며 "일부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각종 규제 적용 대상이지만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현대 3차 아파트 전용 82.5㎡가 22억5000만원, 현대6차 아파트 전용 144.7㎡가 36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2월 현대3차 아파트 전용 82.5㎡는 23억5500만원, 현대6차 아파트 전용 144.7㎡가 37억원

에 거래되며 5000만원~1억원 올랐다.

인근에 있는 한양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1월 24억원, 12월에는 24억8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한 달 동안 8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 12월 평균 매매가는 3.3㎡당 6428만원으로 11월 6375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2월 평균 전세가는 3.3㎡당 1917만원, 11월은 1914만원이다.

이처럼 가격은 한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곧 보합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지난달 30일 기준)은 지난주 0.10% 대비 0.08% 올라 오름폭이 감소했다. 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전 0.10%에서 지난주 0.0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세가는 2주전 0.23%에서 지난주 0.1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함영진 직방비대어랩장은 "압구정동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 가격이 쉽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급상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격 상승폭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숨고르기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NH헤지자산운용,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 도약 출범식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 두번째)이 NH헤지자산운용 이동훈 대표(세번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네번째) 등과 포즈를 취했다. /NH투자증권

기관투자자 투자로 운용

NH헤지자산운용이 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NH헤지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헤지펀드본부에서 분사해 지난해 12월 26일 새롭게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로,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NH농협캐피탈 이구찬 대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배영훈 대표, NH선물 이창호 대표,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NH헤지자산운용은 현재 7000억원 규모의 'NH엠플루트리펀드'와 600억 규모의 'NH Pre-IPO 메자닌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NH엠플루트리펀드'는 국내 헤지펀드 중 단일펀드로는 가장 큰 규모로 기관투자자로부터만 투자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헤지펀드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